

2011년(제53회)도 사시 1차 최종 출원을 현황

- 총 19,536명이 출원하여 작년의 23,44명보다 3,708명 적어
- 1차 처음출원자는 17,498명이 출원하여 작년의 20,929명 보다 3,431명 적어
- 1차 면제자는 2,030명을 2차 경쟁률 치열예상

2월 19일 시행되는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접수가 지난 2011년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최종마감결과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원자는 19,536명으로 확인되었다.

1차시험 처음출원자는 총 17,498명으로 지난해의 20,929명보다 3,431명이 감소하였지만 금년의 1차시험 경쟁률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제1차시험 면제자는 2,030명으로 지난해의 2,315명 보다 285명이 줄었지만 금년의 최종 선발인원이 7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제2차시험 경쟁률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도별 출원자를 보면 서울이 15,029명으로 지난해의 18,078명보다 3,049명이 감소하였으며, 부산은 889명(113명 ↓), 대구 575명(160명 ↓), 광주 576명(23명 ↓), 대전 429명(64명 ↓)을 기록하였다.

금년의 제1차시험장도 지난해와 같은 25개 시험장에서 실시 될 예정이며 서울 21곳, 지방 4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제1차시험 장소 공고는 2월 1일(화)이며 제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14일(목)에 발표될 예정이다.

응시표는 시험일 2주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생들은 원서접수가 종료된 후 반드시 각 차수별 시험일 2주전에 응시표를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여 이때 수험번호 및 시험장·좌석번호를 확인하고 시험당일에 지참하여야 한다.